

같이 보기

: 신입사원 특특

신입사원 (TALK TALK)

글 박민승 대한산업보건협회 부산경남지역본부 사내기자



대한산업보건협회 부산경남지역본부에 2022년 인턴 채용으로 입사한 김은진 인턴사원의 인터뷰를 준비했다. 오늘 만나볼 인턴사원은 어떻게 회사 생활에 적응하고 있는지 인턴사원의 고군분투 협회 적응기를 지금부터 소개해 보고자 한다.



●멘토 : 교육사업팀 김지선 대리

●멘티 : 교육사업팀 김은진 사원



Q 짧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산업보건협회 부산경남지역본부 교육사업팀에 근무하고 있는 김은진 인턴사원입니다. 이번에 2022년도 인턴 채용으로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전 근무지에서 보건관리자로 근무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대한산업보건협회를 알게 되었고 인턴 채용이라는 좋은 기회가 생겨서 인턴으로 지원했습니다.

Q 현재 맡고 있는 업무를 소개해 주세요.

팀명이 교육사업팀이다 보니 주 업무는 안전보건교육 중 관리감독자 심폐소생술 강의를 하고 있어요. 처음에 입사했을 때 강의를 이렇게 많이 할 줄 몰랐지만, 강의할수록 저의 강의 스킬이 향상되고 있다는 걸 느낄 때 뿌듯합니다. 사실 강의 이외에도 교육이 실시되기 전까지 준비과정이 많이 필요해요. 교육 일정 준비, 교육장 세팅, 행정 처리, 교육생 유치 등 여러 가지 업무가 이루어져야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아직은 제 산업보건 경력이 2년 정도라 관리감독자를 대상으로 심폐 소생교육 강의를 하고 있지만 앞으로 경력을 쌓아 보건관리자 교육도 강의하고 싶어요.

Q 우리 협회에 입사하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제 첫 직장은 병원 중환자실로 그곳에서 근무할 때 교대 근무와 강한 업무 강도에 심신이 많이 지치더라고요. 환자를 보는 일 말고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질 때 사업장 보건관리자라는 직종을 알게 되어 전자제품 제조공장과 관공서에서 보건관리자로 근무했었습니다. 전 근무지에서 보건관리자로 근무하면서 건강검진, 건강관리 등 여러 업무를 했었지만 주로 안전보건교육을 전담하여 교육은 제가 잘 알고 있는 부분이라 생각했고 적성에도 맞는 부분이 있어 협회 교육사업팀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Q 회사생활 중 가장 적응하기 어려웠던 순간과 반대로 가장 뿌듯했던 순간은 언제였나요?

대한산업보건협회 강사로 섰던 첫 강의가 인상에 남아요. 첫 강의를 하기 몇 주 전부터 무척이나 긴장이 되었고 자료 준비나 강의 교안도 엄청 신경을 써서 준비했었어요. 그렇게 힘들었던 첫 강의가 끝나니 '아 이제 끝났구나!'라는 생각에 속이 후련하고 가장 뿌듯했던 것 같아요. 당시 저희 팀장님도 부산경남지역본부로 전입해 오신지 얼마 되지 않으셔서 제 첫 강의 시기랑 비슷한 시기에 팀장님도 첫 강의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서로 격려하고 기운을 북돋아 주셔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Q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전보건교육 관리감독자 및 보건관리자 직무교육을 진행하고 난 뒤에 저희 팀에서 교육 운영에 대한 피드백을 위해 교육생들에게 설문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설문지를 보면 협회 내부 강사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높은 걸 볼 수 있습니다. 산업보건계 최고의 전문기관에 근무하는 협회의 훌륭한 직원분들께서 다양한 현장 경험 공유와 역량 강화를 위해 내부 강사 지원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제가 가진 역량과 업무 스킬을 많이 키워서 협회에 도움이 되는 협회인이 되겠습니다. 🍀

